

## 신안산선 지하역사 신축 설계공모 시행

- 2012년 말 건축 기본설계 완료 -

공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 외 12개 지하역사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전체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1단계는 안산중앙(USKR)~광명~여의도까지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2단계는 여의도~서울까지 2022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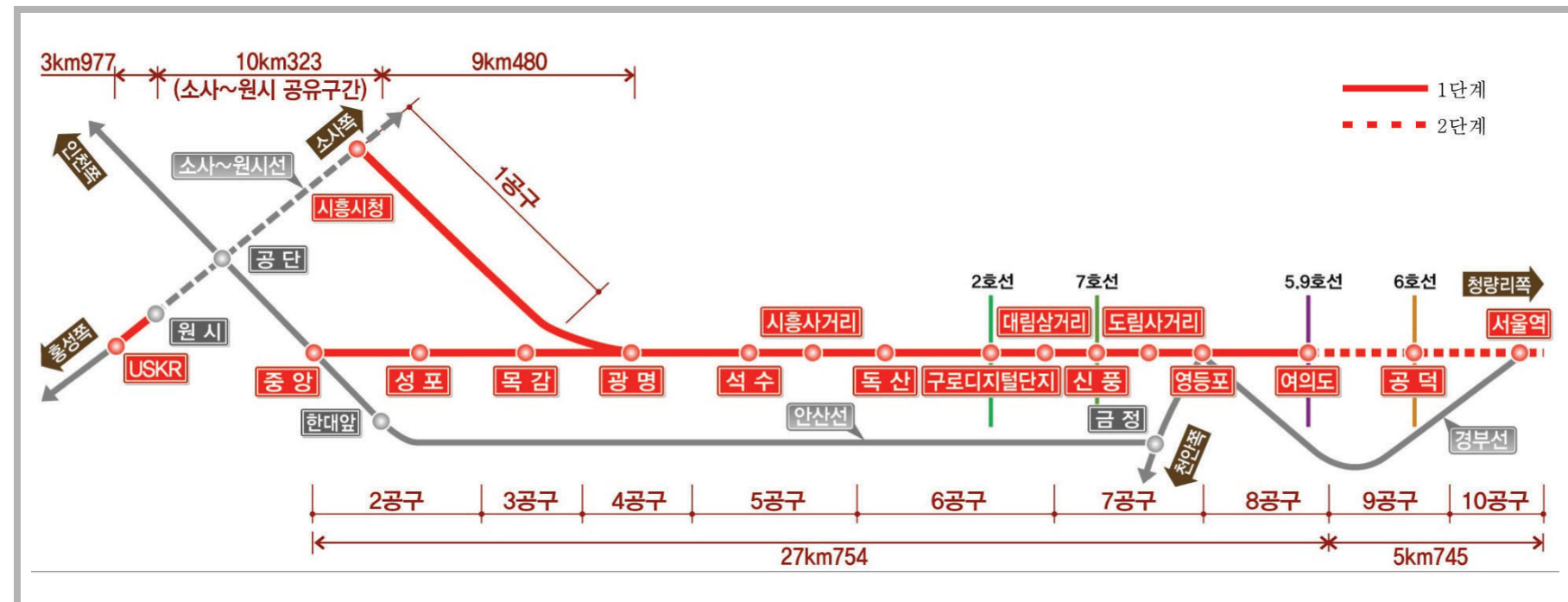
이번 설계공모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중 1단계사업 구간 중 소사~원시 공영구간 2개 역(USKR, 시흥시청)을 제외한 13개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하며, 다수의 설계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5개역), 서울외곽(4개역), 수도권(4개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시행한다.

설계공모는 일반공개로 하며, 1차 2011. 9. 2, 2차 2011. 9. 22, 3차 2011. 10. 13일에 각각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작품심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건축계획, 디자인/색채계획 등이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된다. 당선작은 설계권이 부여되며, 노반 구조물설계와 병행하여 2012년 말까지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구조물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하여 역역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기술실 손용국 기자)



## KR, 정부경영평가 A등급을 향하여 진군!

- 경영실적보고서 지표담당자 멘토-멘티 워크숍 개최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 평가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오송 홍보교육관에서 전직 및 현직 지표담당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실적보고서 지표담당자 멘토-멘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보고서 작성 담당자들이 올해 새로 변경된 평가편람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년 정부경영평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공단이 강점이 있는 비계량부문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부문의 지표가 설계와 시공, 사설과 자산, 해외사업과 철도기술 등이 각각 하나의 지표로 통합됨에 따라, 그 어느 시기보다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워크숍은 '10년 정부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부터 출발하였다. '08년 기관평가 C등급으로 부진했던 공단은 '09년 A등급으로 화려하게 재기하였으나, '10년에는 B등급으로 그 상승세가 주춤하였다. 이는 계량평가 실적이 전년보다 11.1%나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10년에 비계량부문에서 공단이 준정부 1의 10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공단은 B등급을 획득하기도 어려웠다.

'11년 정부경영평가 제도는 '10년도와 차별성이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를 평가에 연동하여 기관의 방만경영을 견제하였다.

특히, 외부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시 관련지표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부여받을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기관과 기관장 평

가치계를 통합하여 39개에 달하던 비계량지표를 18개로 간소화하였고, 보고서 분량도 650쪽에서 300쪽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비중있게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처는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무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로 보고서 품질을 제고하고, 계량실적을 매달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11년 정부경영평가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전직 지표 담당자인 멘토와 현직 지표 담당자인 멘티 간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멘토와 멘티 30명은 이를 통한 '11년 정부경영평가 평가매뉴얼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표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둘째 날에는 재무예산, 설계·시공관리, 사설·자산관리, 해외사업·철도기술, 품질·환경·안전 등 5개 부문의 지표관리 계획을 도출하였고, 담당자들은 올해 12월까지 지표관리계획에 따라 관련 실적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전직 지표담당자가 현직 지표 담당자에게 작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등 노하우를 진솔하게 전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를 통한 워크숍을 주관한 성과관리처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전직 및 현직 워크숍 담당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올해는 철저한 지



표관리로 다시 공단을 정부경영평가 A등급 기관으로 도약시키자고 격려했다.

특히, 성과관리처는 보고서 작성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고과나 성과급에서 소속부서에 배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처는 보고서 작성자가 보고서 작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매달 톨게이트를 시행하고, 11월에는 한글 및 파워포인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년보다 이른 기간에 보고서 작성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공단이 모든 공공기관이 부러워하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비상하기를 기대해본다.

(기획조정실 김지민 기자)

## 서강역 및 공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 10월 사업추진협약 체결, 본격 추진 예정 -

시설운영본부(본부장 정의하)는 지난 8월 23일 경의선 서강역 및 공덕역 철도 부근지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후보자 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의선 서강역은 신영컨소시엄(주)신영+쌍용건설을, 경의선 공덕역 부근지역은 (주)이랜드윌드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의선 서강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신영컨소시엄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컨셉으로 도시형생활주택 2단지(4개동)와 헬스케어(1개동)를 건설할 예정이며, 경의선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주)이랜드윌드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도시형생활주택)을 2개동 건설하게 된다.

향후 본부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들과 올 10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의선 서강역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는 임직원의 역량을 발휘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제공, 지역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공단의 수익창출 및 개발이익의 철도 재투자 등 철도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운영본부 김명중 기자)



## 통로박스 확장으로 고객불편 해소

- 충청본부,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상)는 지난 5일 옥천~세천 간 철도 통로박스 확장과 관련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부위원장 김대식)으로 충청본부(시설사업처장), 옥천군(군수), 보은국도관리사무소(소장),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 본부장)가 참여한 가운데 군북면사무소에서 열렸다.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통로 박스 중 특히 철도 통로 박스의 폭과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 등의 통과가 어려웠으며, 옥천과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구간으로 옥천군 군북면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현장 조정으로 해결하였다.

충청본부에서 관할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공단 25%, 옥천군 75% 부담으로 철도통로박스를 기존 폭이 4.3m 높이 3.4m에서, 폭이 8m 높이 4m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현장조정을 마쳤으며, 고객의 입장에 서로 양보와 협조로 이끌어낸 좋은 사례로, 이번 합의안에 따라 통로박스 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옥천 지역의 대표적 상습 정체구간이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본부 박선규 기자)



## 신속한 경부고속철도 재산·부채 처리!

- 경부고속철도 1단계(2차), 2단계 자산·부채처리 용역 착수보고회 -



시설운영본부 재산처(처장 신동식)는 지난 8월 24일 경부고속철도 자산 및 부채처리를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1단계(2차), 2단계 자산·부채산정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본사 재산 및 재무, 회계 담당자와, 지역본부의 재산 담당자, 재산직원, 철도공사 관계자, 회계사,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산평가산정 △부채원가산정 △경부고속철도2단계 도심구간 자산관리방안 등에 대한 용역수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재산처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관련기관 및 공단내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이룰 예정이다.

(시설운영본부 김명중 기자)

## 공생(共生)발전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터...

- 충청본부, 건설협력사 간담회 개최 -

이양상 충청본부장은 지난 8월 30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옥천구간인 6-4A 및 4B공구 시공현장을 방문, 시공사, 감리단, 하도급업체 직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발주처 간부로서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해결 등 의사소통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도심 공사구간의 공기 준수를 위해 고생하시는 현장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단과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은 상호신뢰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의 자세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설계변경 시 빠른 승인

과 공단의 현장 안전점검 시 시공사 자체적으로 외부안전기관에 의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중폭되는 점검분야는 대체해 줄 것 등이 건의되었다.

금번 건설협력사 간담회는 이후, 충청본부 경부고속철도 시공현장 및 호남고속철도 시공현장까지 주1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소중한 소리를 모아 고객만족향상은 물론, 업무수행 시 각종 민원처리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과 협력사의 공생(共生)발전은 무엇보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으며, 공단 내에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본부 현경탁 기자)

